

PPI 안도, 유가 하락에 메모리·빅테크 기대 유입 3대지수 상승



미국시황/ESG 김윤정 _ 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 hyseong@ls-sec.co.kr

물가 및 반도체 낙관, 성장주 중심 3 대지수 강세

- 미 증시는 DOW +0.13%, S&P500 +0.65%, NASDAQ +0.81% 상승. 통신서비스, 필수소비재, 기술주 강세, 소재 약세
-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0.5% 샌디스크(+13.7%)가 인베스터데이를 통해 '28-'30 매출 및 매출총이익률 낙관적 가이드نس, FCF 100% 주주환원 방침 등 발표하며 물가 우려 완화와 더불어 반도체 투자심리 호조에 기여
- 한편, 10월 상장 예정인 엔트로픽 IPO 투자자미팅 진행. FT는 엔트로픽의 매출 고성장세 감안시 기업가치 \$2조 이상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도. 이는 앞서 스페이스X \$1.77조 상회

물가·고용 지표 둔화에 국채금리 하락, 연준 위원 의견차는 여전

- 7월 PPI YoY +4.7% 전월·컨센 하회, MoM 포함 전월비 증가·컨센 하회. MoM 에너지 -3.1%, 식품 -0.9%, 서비스 +0.2%. 7월 근원 PPI YoY +4.2% 전월비 둔화·컨센 부합, MoM +0.2% 전월·컨센 하회
-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0.9만건 전주·컨센 상회
- 해맥 총재는 최근 물가지표 둔화는 긍정적이나, 추세 지속 여부를 확인할수 없다며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 강조. 반면, 바킨 총재는 인플레이 고착화를 우려하면서도 높은 인플레이의 상당부분이 관세·유가·AI 시스템구축 등 몇몇 충격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면 현재 금리수준은 충분히 긴축적이라 평가

원유수요 전망치 하향·호르무즈 해협 수송량 양호 국제유가↓

- 국제유가 하락 WTI \$81.3(-2.4%), Brent \$87.1(-2.2%). IEA 올해 전세계 원유수요 감소폭 160만 bpd으로 기존 대비 감소폭 51만 bpd 확대. 다만 중동 정세 불안에 낙폭 제한
- 라이트 미 에너지부장관 호르무즈 해협 원유수송량이 7일 평균 900만 bpd, 걸프 파이프라인 수출량 포함시 1,500만 bpd로 밝힘. TD증권 민간추정치인 500만 bpd와 큰 괴리, 전쟁전 수준인 2천만 bpd에 가까워진 수준
- 한편 미 백악관은 중국이 고율 관세 회피를 위해 40여개국을 거쳐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를 구축했음을 지적. 불법환적규모 연간 \$40B~303B 추산, AI 활용 환적 단속 강화 방침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SNDK	샌디스크	+13.7%	2026 인베스터 데이 행사에서 회계연도 2028~2030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 10%대 중후반, 매출총이익률 약 80%라는 가이드نس 제시하며 주가 급등. 또한 CFO는 사업에 대한 투자 이후 남는 잉여 현금을 모두 주주들에게 환원할 계획이라 언급. SK하이닉스 ADR(+7.3%), 마이크론(+4.2%) 등 동반 강세
NFLX	넷플릭스	+5.4%	빌 애크먼이 이끄는 퍼싱스퀘어의 신규 편입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며 주가 강세. 비자(+1.7%), 마스터카드(+1.3%), 알콘(-0.1%), 인터컨티넨털익스체인지(+2.6%), S&P글로벌(+3.1%) 등 6개 기업 퍼싱스퀘어 포트폴리오 신규 편입
GOOG	알파벳	+0.5%	신규 경량 AI 모델 '제미나이 3.7 플래시' 출시했으나, 최고 성능 플래그십 모델인 '제미나이 3.5 프로'의 출시가 지속 지연되며 주가 상승폭은 제한적. 신규 플래시 모델은 코딩 역량이 강화되었고, 구동에 필요한 토큰 비용이 낮아짐
WDAY	워크데이	+17.8%	사모펀드 실버레이크의 인수 추진 보도에 주가 급등. 로이터는 양측이 최근 수개월간 논의 이어왔으나, 협상은 아직 진행중이며 최종 타결 여부는 미정이라 보도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2.5%	장 마감 후 실적발표. 시간외 주가 -4%대 하락중. 매출, EPS, 차기 분기 가이드نس 모두 컨센서스 상회하는 호실적 발표. 다만 그간의 주가 랠리로 인해 높아진 시장 기대치 충족시키지 못하며 시간외 주가 약세. CEO는 주요 고객사들의 장비 증산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27년에도 견조한 성장세 예상한다' 언급